

부르심의 회복, 너는 내게 돌아오라 (학 2:3-9; 속 1:3)

I. 시대, 노아의 때 & 교회 (이전 메시지)

- A.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인자가 임하는 때(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노아의 때로 비유하셨으며 (마 24:37), 제자들에게 1) 깨어 있으며 2)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인자의 임함이 가까운 것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37)

- B.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전략으로 준비하신 것은 “교회”, 즉 “성도들의 모임”이다. 바울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이의 **총만함**”(엡 1:23)으로 불렀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희망과 방주가 되는 것은 그분의 교회이며,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봐야 한다.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 (행 2:42-47)

II. 성전 재건과 부르심의 회복

- A.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메시지를 선포한 때는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렘 25:11; 단 9:2)를 마치고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약 5만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였다. 이때 성전은 변제단만 세워져 있고 (스 3:2), 성전 건물 자체는 기초만 놓은 뒤 공사는 16년 간 중단된 상황이었다 (스 1:10)

4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스 4:4-6)

- B.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어 살고 있었지만 (학 1:4), 사마리아인들은 끊임없는 방해와 참소로 이들이 성전 건축하려는 것을 중단시키고, 또 막고 있었다 (스 4:1-5, 24). 이들은 아직 성벽도 없는 상태라 다른 민족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고, 가뭄 피해까지 막심한 상태였다 (학 1:10-11). **이스라엘 백성은 지쳤고, 지속적인 방해로 의지가 꺾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학 1:4)

- C.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1) 주변 상황과 2) 비참해진 현실(스 4:4-6; 학 2:3)**에 마음을 잃고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지 말고, 다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신다 (학 2:3-9; 속 1:3).

³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나 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흥정역: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⁵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⁶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⁷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⁹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3-9)

- D.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지만, 방해와 어려움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은 백성들이었다.**

³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 1:3)

- E. **스룹바벨아 ...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던 리더십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강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다. 학개 선지자로부터 직접 이 예언과 격려를 듣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던 리더들은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리더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원하신다.

- F.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백성들도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지만, 그 뒤로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힘을 내기가 어렵게 된다. 백성들 개개인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는 일은 마치 전염병처럼 공동체 전체에 퍼지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다 (학 2:4).

⁴ ...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4)

- G.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마리아인들의 공격과 방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원수의 참소를 오랜 시간 듣고 회복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은 우리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의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학 2:5; 출 19:5-6).

⁵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 2:5)

⁵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⁶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 (출 19:5-6)

- H.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강력한 리더가 없습니다", "성전 모양새를 보십시오, 이렇게 작아서 뭘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언제 우리를 가만둘까요?", "일단 살고 봐야죠, 부르심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I.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과 시작한 여정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경주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시며 그분이 하늘의 모든 군대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며, 세상의 모든 재정이 그분 것임을 상기시켜 주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과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다 (롬 11:29). 우리 눈에만 다르게 보일 뿐이다.

⁶ ...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⁷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⁸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⁹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6-9)

³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 1:3)

²⁹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흠정역,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롬 11:29)

- J.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이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근에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삶에 대해 확인해주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믿지만,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 삶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믿고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눈 앞의 현실은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